



백제 역사와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익산문화재야행이 12~13일에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익산문화재야행 전경.

“백제왕궁의 봄밤을 밝힌다”

익산문화재야행 내일 개막
참여 체험 프로그램 강화
문화재 활용 콘텐츠 보강

백제 역사와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익산 백제왕궁 (왕궁리유적)의 색다른 야간 풍경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길 수 있는 익산문화재 야행이 12~13일에 펼쳐진다. 이번 야행에서는 관람객들이 백제유적지구인 익산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문화 유적지를 거닐며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감성 축제 ‘야행’, 지난해보다 내용이 한층 더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 보다 다채롭고 탄탄해진 프로그램과 즐길거리를 소개한다.

8夜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강화
이번 야행에서는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畫), 야설(夜說), 야식(夜食), 야시(夜市), 야숙(夜宿) 등 8夜를 주제로 신규·보완한 37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위해 공식 개막식도 대폭 축소했다. 준비 기간 동안 지난해 일부 프로그램과 행사장 환경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왔고 체험형 위주의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했다. 디지털로 체험하는 ‘문화유산 환상의 VR’, 주물 공예를 활용한 ‘백제공방 체험’, 행사장 곳곳의 추억을 담아가는 포토존 등 문화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백제왕궁 후원 산책’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문화해설사와 함께 백제왕궁 주위

를 걸으며 문화재의 의미를 배울 수 있고 후원에서 간간히 흐르는 국악공연과 흐드러지게 핀 왕궁 벚꽃나무는 덤이다. 왕궁 주변과 후원을 산책하며 사진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도 남길 수 있어 이번 야행의 필수 코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유·무형문화재 활용 콘텐츠 보강
올해 진행되는 야행에서는 처음으로 백제정원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곳과 함께 왕궁리유적 문화재 구간을 활용한 콘텐츠가 한층 강화됐다. 백제정원과 왕궁리 유적에 빛과 조명을 얹은 ‘허화등등 유등산책’, ‘구르미 그린 달빛 포토존’, ‘백제후원 연꽃등 띄우기’는 백제왕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농천선 안 필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인기몰이를 한 ‘천년기원 탐돌이’가 올해도 반듯은 시간까지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참가 신청자들이 백제 의복을 입고 왕궁리 석담 주변을 돌며 소원을 비는 행사로 백제 전통 의복 체험을 통해 기억에 오래 남을 또 하나의 추억을 새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왕궁리 유적에서 발견된 화장실 흔적을 토대로 왕궁의 화장실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샌드아트, 무형문화재 탕화장과 함께 하는 탕화그리기 체험 등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역사 이야기를 흥미로운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지역 주민참여 강화
이번 행사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다. 인근에 위치한 달리마을 골목길 전체가 행사장으로 개방될 예

정이며 오랫동안 문화재 곁에서 살며 누구보다 문화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품고 있는 달리마을 주민들이 직접 먹거리를 준비해 왕궁주막을 운영하며 손님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에서는 현대적인 감각의 퓨전 음식들을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제를 기억할 수 있는 상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프리마켓도 열려 축제의 흥을 한껏 돋을 예정이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각종 공연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곳곳에는 각종 공연들이 펼쳐진다. 우리나라 전통 유형 문화재 뿐만 아니라 무형 문화재를 방문객들에게 홍보하고 함께 즐기는 무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이리농악과 이리향제줄풍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 익산뒤편노래, 익산 기세배 놀이까지 생소한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버스킹 공연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행사장까지의 교통 불편과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시티투어 순환버스가 운영된다. 순환버스는 12-13일 이틀 동안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시내에서 왕궁리유적까지 왕복하며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12일 개막하는 ‘익산문화재야행’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너무 많아 1박 2일로 부족할 정도”라며 “봄기운이 완연한 백제왕궁에서 매혹적인 밤빛과 함께 흥미로운 백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에 초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현원 기자

익산시립도서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도서 특별전 개최

익산시립도서관(관장 김병재)은 제55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내일부터 21일까지 모현도서관 1층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 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 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그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성인 도서뿐 아니라 어린이 도서도 함께 전시돼 아이들도 3.1운동의 의미를 알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 도서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이 가슴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3.1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도서관에서는 시청각자료 대출, 원화전시, 권장도서목록배부, 어린이를 위한 영화 상영 등 도서관주간(4.12~18)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모현도서관 ☎859-3731~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정인천 기자



임시정부의 의미와 역사 널리 알린다

전주역사박물관, ‘100주년 기념 포토존’ 제작

전주역사박물관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포토존을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와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포토존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전주역사박물관이 소장한 태극기로 제작한 태극기 포토존과 나란히 배치해 관람객들에게 독립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포토존에 사용된 사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1921년 1월 1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의 신년 축하식을 기념하고자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에는 안창호, 이동휘, 신익희, 신규식, 이시영, 이동녕 등 주요 임시정부 요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 밖에도 전주역사박물관은 올해 3대 중점사업 중 하나인 3·1운동 정신 계승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 강좌, 전시 등을 통해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에 대한 의미를 기념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